

# 漢語 中古音 異讀字 分析을 통한 中古音 層次 研究\*

염재웅\*\*

## <目 次>

1. 서론
2. 중고음 이독자의 층차
  - 1) 중고음 이독자의 음의관계
  - 2) 중고음 이독자의 상고한어에서의 연원
3. 결론

## 1. 서론

古代漢語에서 異讀字란 한 개의 글자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讀音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글자의 讀音이 서로 다르지만 의미는 서로 같은 同義異讀字와 글자의 讀音이 서로 다르고 각각의 독음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異義異讀字로 나눈다. 이런 異讀字들은 표면적으로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방언의 차이, 文白異讀 등에서 유래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역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실음과 전승음의 차이, 音變 構詞, 通假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中古漢語의 어휘 내부에는 이처럼 복잡한 層次를 포함하고 있는데, 中古音의 어느 한 시간과 공간을 대표하는 音系를 정확하게 알기위해서 音系 내부의 層次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

\* 이 논문(저서)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8023192).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漢語의 層次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丁邦新(2005)은 “왜 漢語의 層次를 분석해야하는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漢語의 진정한 면모를 명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層次는 漢語史의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시적 層次는 우리로 하여금 언어접촉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종류의 層次연구는 역사언어학에 대하여 공헌하게 될 것이다.”<sup>1)</sup>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하는 연구대상은 中古音시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玉篇』, 『經典釋文』, 『切韻』 등의 韻書와 字書들에 출현하는 異讀字들이다.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그 유형과 유래가 밝혀지기도 했으나 漢語 中古音은 자료가 방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거나와 각각의 자료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발견해낸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다. 물론 최근 周玟慧(2003), 張冰(2010)에서 어휘확산이론을 이용한 中古音의 層次를 연구하거나 中古音 韻書의 異讀字들을 이용하여 『切韻』의 성격을 논하였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자는 音變構詞로 발생한 異讀字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후자는 어휘확산이론을 활용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

周祖謨(1946), 周法高(1962)에서 四聲別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孫玉文(2007)에 와서는 단순한 音義關係를 표현하는 四聲別義의 관점을 뛰어넘는 變調構詞라는 용어와 개념을 수립하여 100개의 기본어휘를 분석한 바 있다. 이는 단음절의 어휘가 다수를 이뤘던 古代漢語에서 한 음절을 구성하는 聲母, 韻母, 聲調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성분을 변화시켜 새로운 의미의 어휘를 만드는 音變構詞의 일종으로, 예를 들어 孫玉文(2007)은 “右”자의 變調構詞는 “원시사의 의미는 ‘오른손’이며, 인신되어 ‘오른쪽’을 가리킨다. 명사로서 독음은 云久切(上聲)이다. 자생사의 의미는 ‘옆에서 협조하다. 돕다’이며, 동사로서 독음은 于救切(去聲)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또한 音變構詞의 배경과 발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玉篇』 『廣韻』 『集韻』 등의 中古音 字書 韻書와 『經典釋文』 등의 音義書, 經書

1) 丁邦新(2005:147) : “爲什麼要分析漢語的層次? 因爲藉由這種分析才能弄明白漢語真正的面貌。歷史的層次跟漢語史的研究息息相關, 平面的層次使我們瞭解語言接觸的過程, 兩者對歷史語言的理論都可能有所貢獻。”

2) 孫玉文(2007:23-34) : “原始詞, 義爲右手, 引伸指右邊, 名詞, 云久切(上聲)。滋生詞, 義爲從旁協助, 幫助, 動詞, 于救切(去聲)。”

史書 詩文 등의 자료를 망라하여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音變構詞의 특징을 가진 中古音 異讀字를 분석하기 위해서 孫玉文(2007)의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變調構詞 이외에도 變聲構詞, 變韻構詞, 詞義構詞, 使動構詞 등의 音變構詞와 관련된 異讀字의 用例를 살펴볼 것이다.

## 2. 중고음 이독자의 층차

### 1) 중고음 이독자의 음의관계

音義關係에 대한 연구는 漢語의 字音과 字義의 상관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 분야를 일컫는다. 한어의 음의관계에 있어 단순한 一對一 對應이 아닌, 하나의 한자에 두 개 이상의 字音을 가지거나, 또한 각각의 字音에 두 개 이상의 字義를 가지고 있는 同義異讀字나 異義異讀字가 존재한다. 이처럼 一對多 혹은 多對多의 대응이 형성되는 이독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중고음의 다양한 음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漢語史에서 音義關係를 전문적으로 기술한 音義書가 다량으로 전해 내려오는데, 이 音義書에 대해서 周祖謨(1988:p.452)는 “音義書는 전문적으로 한자의 독음과 의미를 해석한 책을 가리킨다. 옛 사람들은 한 권의 서적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나오는 단어를 들어 그 독음과 의미를 주해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고서 특유의 체례이다.(音義書專指解釋字的讀音和意義的書。古人爲通讀某一部書而摘舉其中的單詞而注出其讀音和字義，這是中國古書特有的一種體例。)”<sup>3)</sup>라고 설명하였다. 상고음과 중고음 이독자의 음의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는 『經典釋文』이다. 이 音義書는 陸德明(550-630)이 저술하였으며, 7371개의 한자에 70803 차례<sup>4)</sup>의 注音을 하여 책이 저술된 隋唐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전승 한자음과 자의에 관한 音義關係를 파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3) 周祖謨,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北京, 1988年, p.452.

4) 萬獻初, 『經典釋文音切類目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4年.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본 절에서는 『經典釋文』, 『玉篇』, 『廣韻』, 『集韻』, 『群經音辨』 등 中古시기의 音義書와 韻書 등을 참고하여 대표적인 다음의 다섯 개의 한자를 實例로 들어, 해당 한자들이 어떠한 음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 (1) 監

原始詞는 동사 “감시하다, 감독하다”라는 의미 또는 명사 “감시자, 감독관”의 의미로 독음은 “古銜切(平聲)”이고, 滋生詞는 동사 “(물이나 거울에) 비취보다, (사람이나 사물에) 비취 생각하다, 미뤄 유추하다”라는 의미로 독음은 “古懺切(去聲)”이다.

周祖謨(1949)는 “監”자를 “단어의 성질이 달라짐에 따라 변조되는 경우(因詞性不同而變調者)”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동사에서 나뉘어 명사로 쓰이는(區分動詞用爲名詞)” 종류로 분류하였다. 또한 G. B. Downer(1959)는 “監”자를 原始詞는 동사(to oversee)이고, 滋生詞는 명사(an overseer)가 되는 音變構詞로 보았다. 문헌과 『經典釋文』 주석에 나타난 “監”의 음의관계는 다음과 같다.

#### ① 見銜開二平-“감시하다, 감독하다”, “감시자, 감독관”<sup>5)</sup>

[1] 『周禮·司門』: “祭祀之牛牲繫焉, 監門養之。(제사에 사용하는 희생은 묶어두고, 監門[성문을 감독하는 관리]이 키운다.)” 注: “監門, 門徒。” 『釋文』: “古銜反。” (117-19a-8)<sup>6)</sup>

[2] 『禮記·曲禮上』注: “監駕且爲馬行。(監駕[말을 감독하는 관리]는 말을 타고 다니는 일을 관장한다.)” 『釋文』: “監, 古銜反。” (165-7b-8)

[3] 『禮記·月令』: “百工咸理, 監工日號。(모든 공인들이 제품을 만들 때, 監工[작업을 감독하는 관리]이 매일 작업지시를 내린다.)” 『釋文』: “監工, 古銜反。”

5) 본 장의 목제목 표제에서는 『經典釋文』에 나오는 독음의 중고음 음운지위를 우선 표시하고, 그 뒤에는 해당 독음에 상응하는 의미를 표기하여 음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6) 괄호 속의 숫자는 『經典釋文』(〔隋〕陸德明 著, 黃坤堯, 鄧仕樑 校訂索引, 學海出版社, 1988.)에 해당 어휘가 수록된 문헌의 색인번호이다.

(176-29b-10)

[4] 『春秋左傳·閔公·傳二年』：“君行則守，有守則從。從曰撫軍，守曰監國。(군주가 출정하면 태자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사람이 있으면 태자는 군주를 따라 출정한다. 군주를 따라 출정하는 것을 ‘군대를 돌본다(撫軍)’라고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나라를 감시한다(지킨다)(監國)’라고 한다.” 『釋文』：“古銜反。”(231-21a-5)

[5] 『春秋左傳·昭公·傳三十年』：“使監馬尹大心逆吳公子，使居養。(監馬尹인 大心을 파견하여 吳나라의 태자를 영접하고, 그들로 하여금 ‘養’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釋文』：“監，古銜反。”(292-4b-2)

② 見闕開一去—“(물이나 거울에) 비취보다, (사람이나 사물에) 비취 생각하다, 미뤄 유추하다”

[6] 『尚書·太甲上』：“監厥德，用集大命，撫綏萬方。(하늘이 湯의 덕을 살펴 보고 그에게서 왕명을 모아 천하를 돌보고 평안하게 한다.)” 疏：“監，視也。” 『釋文』：“監，工暫反。”(42-14a-1)

[7] 『毛詩·柏舟』：“我心匪鑒，不可以茹。(내 마음은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없으니,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네.)” 注：“鑒所以察形也。” 『釋文』：“監’本又作鑒’，甲暫反。”(57-9b-11)

[8] 『毛詩·大東』：“維天有漢，監亦有光。(하늘에 한 줄기 은하수가 있어, 은하수에 비취보니 빛이 나네.)” 注：“箋云：‘監，視也。’” 『釋文』：“監，古暫反。”(83-26b-4)

[9] 『禮記·王制』：“天子使其大夫爲三監，監於方伯之國，國三人。(천자가 그 대부로 하여금 三監이 되어, 방백의 나라에 비취 살피도록 하였고, 각국은 세 사람씩의 三監을 두도록 했다.)” 注：“使佐方伯，領諸侯。” 『釋文』：“監，古暫反。監於，古銜反。”(173-23b-7)

[10] 『春秋左傳·莊公·傳二十三年』：“監其德也。(그 덕행에 비취야 살펴보았다.)” 『釋文』：“本又作鑑，古暫反。”(230-19b-9)

[11] 『論語·八佾』：“子曰：‘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공자께서는 ‘주나라의 예악제도는 하나라와 상나라의 두 왕조에 비취보고 참고한 것이다. 그 찬란한 문풍이여! 나는 주나라의 예악제도를 따르겠다.’라고 하셨다.)” 『釋文』：“古暫反。觀也。視也。”(346-3b-8)

③ 見陷開二去—“(물이나 거울에) 비취보다, (사람이나 사물에) 비취보다, 미뤄 유추하다”

[12] 『尚書·酒誥』：“古人有言曰：‘人無於水監，當於民監。(옛 성현의 말씀에 ‘사람은 물에 비취보지 말고, 백성들의 마음에 비취봐야 한다.’라고 하였다.)” 注：“視水見己形，視民行事見吉凶。” 『釋文』：“監，工陷反。”(47-6b-3)

④ 見鑑開二去—“비취보다”

[13] 『莊子·盜跖』：“名利之實，不順於理，不監於道。(명예와 이익의 실제 상황은 이치에 맞지 않고, 도에 비추어 봐지지 않는다.)” 『釋文』：“監，本亦作鑑同”(400-22a-6)

[14] 『爾雅·釋詁』：“監、瞻、臨、蒞、頰、相，視也。(‘監’, ‘瞻’, ‘臨’, ‘蒞’, ‘頰’, ‘相’ 등의 어휘는 모두 ‘보다’라는 의미이다.)” 『釋文』：“監音鑑。”(409-6a-5)

이상의 문헌 속 예문과 『經典釋文』의 주석에서 반영된 “監”의 용례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평성(見銜開二平)과 거성(見闕開一去/見陷開二去/見鑑開二去)의 독음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監”의 평성 독음인 [4]번 예문에서 “감시하다, 감독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4]번을 제외한 [1]~[5]번 예문 속의 “監”자는 동사에서 명사로 인신되어 “감시자, 감독”의 의미로 쓰였다. [6]~[14]번 예문의 “監”자는 모두 거성으로 주음하고 있는데, [6]번, [8]번, [11]번 예문의 注疏에서는 “監”자에 대해 “視也(보다, 관찰하다)”라고 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뒤 문맥상 모두 “(물이나 거울에) 비취보다”의 의미로 해석되거나 “(사람이나 사물에) 비취보다, 미뤄 유추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9]번,

[10]번, [12]~[14]번의 예문에서 “監”자는 注疏에서도 “鑑”이라고 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③과 ④의 운모가 ②와 다르지만, 주요원음의 차이가 크지 않고 동일하게 거성의 성조를 가지고 있으며, 음의관계에서도 일관성을 보이므로, ②, ③, ④의 이독자는 동일한 부류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監”의 중고음시기의 음의관계를 종합해보면, “監”의 평거성 이독자는 變調構詞이며, 이 두 이독자에서 평성(감시하다, 감독하다)은 능동형을 나타내고 거성(비취보다)은 사동형을 나타내는 使動構詞이다..

이외에도 『廣韻』, 『群經音辨』 등의 중고운서에서도 “監”자의 평거성 變調構詞 음의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廣韻』古銜切: “領也。察也。『說文』云: ‘臨下也。’ 格讖切: “領也。亦姓。『風俗通』云: ‘衛康叔爲連屬之監其後氏焉。’ 『群經音辨·辨字音清濁』: “監, 莅也, 古銜切。莅事者曰監, 古陷切。”) 하지만 『玉篇』에는 同義異讀字로 처리하였다.(『玉篇』: “公衿, 公陷二切, 視也。”)

## (2) 觀

原始詞는 동사로 “보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로, 독음은 “古丸切(平聲)”이고, 滋生詞는 동사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다, (아랫사람에게) 보이다”의 의미로, 독음은 “古玩切(去聲)”이다.

G. B. Downer(1959)는 “觀”자를 原始詞는 동사(to look at)이고, 滋生詞는 명사(a view, mound, tower)가 되는 것으로 분류하였고, 또한 滋生詞가 사동형(to show)이 되는 音變構詞로 보았다. 그리고 周法高(1962)는 “觀”을 거성 혹은 탁성모가 사동형이 되는 형태(去聲或濁聲母爲使謂式)의 音變構詞로 분류하였다. 문헌과 『經典釋文』 주석에 나타난 “觀”의 음의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見桓合一平-“보다. 관찰하다”/(見換合一去-“官喚反”)<sup>7)</sup>

[15] 『周易·觀』: “觀光之國, 利用賓于王。(국가의 기운을 관찰하여 왕을 따

7) 『經典釋文』의 주음에서 독음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장의 표제에서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首音에 해당하는 중고음운지위는 앞부분에 기술하고 又音이나 或音 등의 음운지위는 首音 뒤에 “/”로 분리한 후 괄호 속에 기입하였다.

라 하는 일에 유리하게 한다.) 『釋文』：“如字，或音官喚反。”(22-8a-9)

[16] 『周易音義·觀』：“盡夫觀盛，故觀至，大觀在上。(무릇 풍성한 것을 관찰하는 것을 다하니, 그런 까닭에 관찰이 지극했고, 군주께서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살펴보셨다. [백성들에게 우러러 보였다.])” 『釋文』：“王蕭音官。並官喚反。”(22-8a-11)

[17] 『周易音義·觀』：“中正以觀天下(군주가 중앙에서 올바름을 행하고 천하를 관찰한다.)” 『釋文』：“徐唯此字作官音。並官喚反。”(22-8a-11)

[18] 『論語·陽貨』：“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시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관찰력을 키울 수 있으며, 단결심을 키우고, 풍자할 수 있다.)” 『釋文』：“如字。”(354-19b-3)

② 見換合一去—“(다른 사람에게) 보이다, (아랫사람에게) 보이다 ”

[19] 『周易·觀』：“觀，盥而不薦。有孚顛若。(‘觀(보이다)’卦는, ‘술을 땅에 부어 신을 맞이하되 동물의 희생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 간소한 제사를 지내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순응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釋文』：“官喚反，示也。”(22-8a-5)

[20] 『周易·繫辭下』：“天地之道，貞觀者也。(하늘과 땅의 법도는 올바름을 보이는 것이다.)” 『釋文』：“官喚反，又音官。”(32-27b-9)

[21] 『尚書·益稷』：“予欲觀古人之象，日、月、星辰、山、龍、華蟲，作會。(나는 고인의 형상인 해, 달, 별, 산, 용, 꿩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려고 한다.)” 傳：“欲觀示法象之服制。” 『釋文』：“舊音官，又官喚反。”(39-7b-3)

[22] 『詩經·唐風·有杕之杜』：“彼君子兮，噬肯來游?(그 사람은 나를 보러 올까요? (내게 보이도록 와줄까요?))” 注：“游，觀也。” 『釋文』：“觀，古亂反。”(60-15b-9)

[23] 『老子·二十六章』：“雖有榮觀，燕處超然。(비록 화려하게 보이는 거처가 있어도, 편안한 곳에 머물며 태연자약했다.)” 『釋文』：“古亂反。”(357-4a-1)

이상의 문헌 속 예문과 『經典釋文』 주석에 나타난 “觀”의 용례를 살펴보면, 평

성(見桓合—平)과 거성(見換合—去)의 독음에 따라 명확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 다만 일부 예문에서 두 가지 독음을 모두 주음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예문의 문맥상 “바라보다” 또는 “보이다” 등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지만, 이런 경우 첫 번째 독음(首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한다. 예를 들어, [16]번 예문에서 “大觀在上”이라는 구절은 王蕭에 의하면 평성으로 주음 하였고, 거성의 독음도 있다. 의미상으로, “觀”을 평성으로 독음하면 “군주가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보다”라는 의미가 되고, 거성으로 독음하면 “군주가 높은 곳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觀”의 거성 독음은 “보이다. 아랫사람에게 보여지다”라는 의미인데, [19]번 예문이 가장 대표적이다. [23]번 예문의 “觀”은 거성으로 독음하여 “전망이 좋은 장소”라는 의미이다. 위의 예문에서 보이는 중고시기의 음의관계를 종합해보면 “觀”의 평거성 이독자는 變調構詞이며, 이 두 이독자에서 평성(보다視也)은 능동형을 나타내고 거성(보이다示也)은 사동형을 나타내는 使動構詞이고, 또 다른 하나의 거성(전망이 보이는 장소)독음은 명사로 詞義構詞이다.

『廣韻』, 『群經音辨』 등의 중고운서에서도 “觀”의 평거성 變調構詞 음의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廣韻』古丸切: “視也。”古玩切: “樓觀。『釋名』曰: “觀者於上觀望也。『說文』曰: “諦視也。” 『群經音辨·辨字音清濁』: “觀, 視也, 古完切。謂視曰觀, 古玩切, 『易』: “大觀, 童觀。”)

### (3) 期

原始詞는 동사로 “기약하다, 바라다, 요구하다” 또는 “일정한 기간”의 의미이고, 독음은 “渠之切(平聲)”이고, 滋生詞는 명사로 “주기, 기일”의 의미로, 독음은 “居之切(去聲)”이며, 또 다른 하나의 滋生詞는 동사로 “매년 주기적으로 상복을 입고 상례를 치르다”의 의미로 독음은 “居宜切(平聲)”이다. 고문헌과 『經典釋文』 주석 속에 반영된 “觀”의 음의관계는 다음과 같다.

#### ① 群之開三平—“기약하다”, “일정한 기간”

[24] 『禮記·射義』：“好學不倦，好禮不變，旄、期稱道不亂者不？在此位也。（배우기를 좋아하여 지치지 않고, 예법을 좋아하여 영원히 불변하며, 8,90세에서 100세까지 법도를 지키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남으시오.)” 『釋文』：“本又作旗，音其，如字，百年曰期。” (219-23a-4)

[25] 『春秋左傳·僖公·二十三年』：“九月，晉惠公卒。懷公立，命無從亡人，期，期而不至，無赦。（9월에 진 혜공이 서거했다. 회공이 즉위하여, 도망간 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명령하였고, 복귀시한을 정했다(기약했다). 그 기일이 돌아와도 복귀하지 않는 자는 사면해주지 않았다.)” 『釋文』：“上如字，下音基，下亦作朞。” (235-3a-11)

② 見之開三平—“주기, (제사처럼 매년 행해지는) 기일”, “기한”

[26] 『周易·繫辭上』：“乾之策二百一十有六，坤之策百四十有四，凡三百有六十，當期之日。（‘건’괘 6효의 산가지는 216종이고, ‘곤’괘 6효의 산가지는 144종으로, 통틀어 360종이 있는데, 1년의 날짜에 상당한다.)” 『釋文』：“本又作朞，音基同。” (31-26b-6)

[27] 『周易·繫辭下』：“古之葬者，厚衣之以薪，葬之中野，不封不樹，喪期無數，後世聖人易之以棺槨，蓋取諸大過。（상고시대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시신을 두르고 땀나무로 두텁게 감싸고, 들판의 중앙에서 장례를 지냈으며, 봉분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어 표시하지 않았고, 제사를 지내는 기일을 헤아리지 않았다[정하지 않았다]. 후세의 성인이 장례를 관을 사용해서 지내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대개 ‘大過’卦에서 형상을 얻을 수 있다.)” 『釋文』：“並如字。” (32-28b-4)

[28] 『周禮·朝士』：“凡土之治有期日，國中一旬，郊二旬，野三旬，都三月，邦國期。（무릇 선비의 다스림은 기한이 있는데, 국내에서 열흘, 교외에서 스무날, 들판에서 삼십일, 도시에서 삼 개월, 이웃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정한 기한까지이다.)” 『釋文』：“國期，居其反。” (132-14a-4)

[29] 『禮記·禮運』：“故仕於公曰臣，仕於家曰僕，三年之喪，與新有昏者，期

不使，以衰裳入朝，與家僕雜居齊齒，非禮也，是謂君與臣同國。(군주의 아래에서 벼슬하는 것을 ‘신하’라고 하고, 사대부의 집에서 일하는 것을 ‘노복’이라고 하는데, 신하는 3년간의 복상 기간과 신혼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에는 군주는 일을 시킬 수 없다. 상복을 입고 조회에 나오거나, 경대부가 집에서 노복들과 준비와 상하의 분별 없이 지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 것으로, 이는 군주와 신하가 국권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釋文』：“期，居其反。”(182-6a-10)

[30] 『春秋左傳·莊公·傳八年』：“齊侯使連稱、管至父戍葵丘，瓜時而往，曰：‘及瓜而代。’期戍，公問不至。請代，弗許。故謀作亂。(齊侯는 連稱과 管至父를 戍 시기에 葵丘에 파견하고, 참외가 익는 시절에 찾아가서 ‘내년에 참외가 익는 시절이 되면 교대해주겠다’고 말했다. 다음해의 戍 시기가 되자, 제후에게서 는 소식이 오지 않았다. 교대해주기를 청했으나, 승낙을 받지 못하자 반란을 도모 했다.)” 『釋文』：“期音基，本亦作基。”(227-14a-9)

[31] 『春秋左傳·僖公·二十三年』：“九月，晉惠公卒。懷公立，命無從亡人，期，期而不至，無赦。(9월에 진 혜공이 서거했다. 회공이 즉위하여, 도망간 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명령하였고, 복귀시한을 정했다[기약했다]. 그 기일이 돌아와도 복귀하지 않는 자는 사면해주지 않았다.)” 『釋文』：“上如字，下音基，下亦作基。”(235-3a-11)

③ 見支開三平—“주기적으로 상복을 입고 상례를 치르다[服喪하다]”

[32] 『禮記·王制』：“三年之喪，自天子達。(삼 년 상은 천자로부터 서민에게까지 모두 예외가 없다.)” 注：“下通庶人於父母，同天子諸侯降期。(부모에 대한 상례는 아래로는 서민에게까지 통하고, 천자와 제후도 상례를 치르고 복상服喪을 한다.)” 『釋文』：“居宜反。”(173-24b-10)

[33] 『禮記·曾子問』：“女在塗，而女之父母死，則女反。(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에 신부의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신부는 집으로 돌아가 상례를 치르고 복상한다.)” 注：“奔喪服期。” 『釋文』：“期，居宜反。”(180-1b-4)

[34] 『論語·陽貨』：“舊穀既沒，新穀既升，鑽燧改火，期可已矣。(옛 곡식은

이미 먹어버렸고, 햇곡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나무를 비벼 불을 피우는 나무도 불을 바꾸게 되었으니, 복상은 1년이면 됩니다.) 『釋文』：“居宜反。”(354-19b-11)

이상의 문헌 속의 예문과 『經典釋文』의 주석에 나타난 “期”의 용례를 살펴보면, 성모가 群母인 (群之開三平)과 見母인 (見之開三平/見支開三平)의 독음의 차이에 따라 의미에도 차이가 있는 전형적인 音變構詞이다. 성모가 群母인 “群之開三平”으로 독음하는 [24]번과 [25]번은 각기 [24]번 예문의 “期”는 “100세”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期”가 “100세”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100세”의 의미는 각별하기 때문이다. “二十弱冠, 三十而立, 四十不惑……”라는 말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옛 사람들은 인간이 출생해서 매 10년을 지날 때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열 번의 10년을 보낸 “100세”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해에 대해 “期”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25]번 예문에는 두 개의 “期”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출현한 “期”자는 동사로 “기약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또한 성모가 見母인 “見之開三平” [26]~[31]번의 예문의 “期”자는 “주기, (제사처럼 매년 행해지는) 기일”, “기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滋生詞의 의미는 原始詞인 “기약하다”에서 인신된 것이며, 성모의 변화로 의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變聲構詞이다. “見支開三平”으로 독음하는 [32]~[34]번의 예문 중의 “期”의 의미는 “주기적으로 상복을 입고 상례를 치르다(服喪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見之開三平”으로 독음하는 “期”에서 인신된 것으로 운모의 변화로 의미상의 변화를 만드는 變韻構詞이자, 동시에 “服喪을 치르다”라는 의미의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므로 特指構詞이다.

다른 중고문서에서도 “期”의 音變構詞에 대한 음의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廣韻』, 『集韻』, 『群經音辨』에는 群母와 見母의 變聲構詞만을 수록하고 있으며, 『玉篇』에는 音變構詞의 상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廣韻』渠之切：“期, 信也。會也。限也。要也。”居之切：“朞”周年, 又復時也。”『集韻』渠之切：“『說文』：‘會也。’一曰：‘限也。要也。’居之切：“朞”『說文』復其時也。引『虞書』：‘稭

三百有六句。”『玉篇』月部：“巨基切。會也。當也。要也。時也。契約也。”『群經音辨·辨字同音異』：“期，會也，渠之切。期，復時也，音朞，『周歲』曰：‘期禮不能期月守自旦亦曰期。’『春秋傳』：‘旦而立期焉。’”

(4) 閒

原始詞는 명사 “문틈, 빈틈”이라는 의미로 독음은 “閒廁之間(去聲)”이며, 여기에서 인신되어 동사 “간여하다”, “(중간에서) 번갈아가며 하다”로 발전하였다. 滋生詞는 명사 “간격”, 동사 “간격이 생기다”, “간격이 있어 변화가 생기다”, “(중간에서) 시비를 가리다”라는 의미로 발전했으며, 독음은 “古閑反(平聲)”이다. 또 하나의 滋生詞는 형용사로 “한가하다”라는 의미이고, 독음은 “戶閑反(平聲)”이다.

周祖謨(1949)는 “閒”자를 “단어의 성질이 달라 변조된 경우(因詞性不同而變調者)”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명사에서 나뉘어 동사로 쓰이는(區分名詞用爲動詞)” 종류로 분류하였다(閒, 中也, 古閑切, 平聲. 廁其中曰閒, 古覓切, 去聲. 案閒音去聲, 爲動詞. 凡閒隔、閒代、閒諜、非難、病閒之義, 並同.). G.B.Downer(1959)는 “閒”자를 原始詞는 명사(space between)이고, 滋生詞는 동사(to be (or place) between)인 音變構詞로 보았다. 『經典釋文』주석에 반영된 “閒”의 음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見禰開二去-“문틈, 빈틈, 결점”, “간여하다”, “(중간에서) 번갈아가며 행하다”

[35] 『尚書·益稷』：“笙鏞以閒，鳥獸跄跄。(생황을 불고 종을 치며 음악을 번갈아 연주하면 새와 짐승이 이리 저리 걸으며 춤을 춘다.)”注：“閒，迭也。”『釋文』：“閒廁之間。”(39-8a-3)

[36] 『尚書·立政』：“相我受民，和我庶獄庶愼，時則勿有閒之。(우리를 도와 주는 인민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소송과 재판에 관한 일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였으니, 이에 대해 그 일을 맡은 관원을 대신하여 처리하지 말라.)”注：“如是則勿有以代之。”『釋文』：“閒廁之間。”(49-10a-7)

[37] 『詩經·周頌·桓』：“於昭于天，皇以間之。(아! 무왕의 공덕이 하늘에 드러나니, 하느님은 그에게 商紂를 대신해서 천하에 간여하게 했네.)” 注：“間，代也。” 『釋文』：“間，間廁之間。” (104-29a-10)

[38] 『春秋左傳·莊公·傳十年』：“其鄉人曰：‘肉食者謀之，又何間焉?’(그와 같은 고향인 사람이 ‘고기를 먹는 자들[사대부들]이 그것을 도모하는데, 어떻게 간여할 건가요?’라고 물었다.)” 注：“間猶與也。” 『釋文』：“間廁之間。”

[39] 『春秋左傳·哀公·傳二十五年』：“且君嘗在外矣，豈必不反?當今不可，衆怒難犯。休而易間也。(그래서 군왕은 일찍이 외부에 계신 적이 있는데, 설마 반드시 돌아오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중의 분도를 거스르면 안 될 것입니다. 반란을 평정하면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이간시키는 쉽습니다.)” 『釋文』：“間廁之間。內間爲君間皆同。” (304-27b-11)

[40] 『論語·泰伯』：“子曰：‘禹，吾無間然矣!’(우임금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의 빈틈을 찾을 수 없다[결점이 없다!])” 『釋文』：“間廁之間。” (349-9b-5)

[41] 『莊子·天地』注：“故史籍無所載，仲尼不能間。(그래서 사적은 기재된 곳이 없고 공자는 간여할 수 없었다.)” 『釋文』：“間廁之間。” (378-11a-7)

② 見山開二平-“간격”, “간격이 생기다”, “(원래의 상황에서부터 간격이 생겨) 병세에 변화가 생기다”, “(중간에서) 시비를 가리다”

[42] 『春秋左傳·文公·傳十六年』：“請盟，齊侯不肯，曰：‘請俟君間。’(季文자가 맹약을 맺을 것을 청했지만 齊侯는 응하지 않으며 ‘귀국의 군주께서 병에서 나오신 후에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注：“間，疾瘳。” 『釋文』：“間，如字。瘳，勅周反，差也。” (242-18b-9)

[43] 『莊子·齊物論』：“大知閑閑，小知間間。(큰 지혜를 가진 이는 널리 박식하고, 작은 지혜를 가진 이는 작은 것을 분별한다.)” 注：“間間，分別也。” 『釋文』：“古閑反，有所間別也。” 俞樾曰：“『廣雅·釋詁』：‘間覩也。’小知間間，當從此義謂好觀察人也。『釋文』曰‘有所間別’非是。” (362-6b-11) 중간에서 시비를 가리다

[44] 『莊子·人間世』：“上徵武士，則支離攘臂而遊於其間。(정부에서 징병할 때, 支離는 팔을 흔들며 그 사이에서 유유자적했습니다.)” 『釋文』：“臂於其間，如字。司馬云：‘間，裏也。’”(367-16b-8)

[45] 『莊子·大宗師』：“莫然有間而子桑戶死，未葬。(묵묵히 아무 말 없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 子桑戶가 죽었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釋文』：“如字，崔李云：‘頃也。本亦作爲間。’”(371-23a-4)

[46] 『莊子·天地』：“未形者有分，且然無間謂之命。(형체가 없을 때 음양의 구분이 생기고, 간격이 없이 운행되는 것을 ‘命’이라고 부른다.)” 『釋文』：“如字。”(378-11a-8)

③ 見山開二平—“간격, 사이”, “중간에서 상대방의 결점을 살펴보다”(見禰開二去)

[47] 『周易·噬嗑』注：“噬，齧也。嗑，合也。凡物之不親，由有間也。物之不齊，由有過也。(‘噬’는 치아로 씹는다는 뜻이다. ‘嗑’ 서로 합친다는 뜻이다. 무릇 사물에 친하지 않은 것은, [서로간에] 사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물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지나침이 있기 때문이다.)” 『釋文』：“如字。又音間廁之間。”(22-8b-6)

[48] 『禮記·雜記第二十』：“醴者，稻醴也。甕、甗、筭、衡，實見間，而後折入。(순장에 쓰는 예주는 쌀을 빻어 만든다. 간장과 식초를 만드는 항아리, 술을 담그는 항아리, 곡식을 담은 대나무 바구니, 항아리와 바구니를 올려놓는 선반을 관을 덮는 천 사이에 채우고, 그런 다음에 나무 침대를 설치하고 봉토로 덮는다.)” 『釋文』：“見音間，間廁之間，棺衣也。間如字，徐古覓反。一云：‘鄭合見間二字，共爲覓字，音古辨反。’”(199-20b-6)

[49] 『春秋左傳·莊公·傳八年』：“連稱有從妹在公宮，無寵，使間公。(연칭은 사촌여동생이 齊나라 襄公의 후궁이었는데, 총애를 얻지 못하자, 그녀로 하여금 중간에서 양공의 약점을 살펴보라고 시켰다.)” 注：“伺公之間隙。” 『釋文』：“間，如字，或古覓反，非。”(227-14a-10)

④ 見山開二平-“간격을 두다”/(見彌開三上)

[50] 『禮記·文王世子』：“凡侍坐於大司成者，遠近間三席，可以問。(무릇 대 사성의 옆에 앉는 자는 세 좌석의 거리에 앉아야 질문할 수 있다.)” 『釋文』：“間，如字。間猶容也。徐古辨反。”(181-3b-9)

⑤ 匣山開二平-“한가하다”

[51] 『詩經·女曰雞鳴』注：“間於政事，則翱翔習射。(정사에 한가로이 노닐 며, 활쏘기를 연습한다네.)” 『釋文』：“音閑。”(64-24b-8)

[52] 『詩經·漆洧』：“女曰觀乎，士曰既且。(여자가 ‘함께 구경할까요?’라고 했더니, 남자는 ‘이미 봤어요.’라고 말했다네.)” 注：“『箋』云：‘女曰觀乎’，欲與士觀於寬間之處。” 『釋文』：“間，音閑。”(64-26b-9)

[53] 『公羊傳·定公·十四年』傳：“古者諸侯將朝天子，必先會間隙之地，考德行。(옛날에는 제후가 천자를 찾아가 조회할 때, 반드시 우선 공터에 가서 덕행을 시험해야한다.)” 『釋文』：“間隙，音閑。”(323-35a-2)

[54] 『莊子·逍遙遊』：“彼其於世未數數然也。(그는 세속의 명예에 대해 급하게 좇지 않는다.)” 注：“足於身，故閑於世也。” 『釋文』：“音閑，本亦作閑。”(361-3a-7)

이상의 문헌 속의 예문과 『經典釋文』의 주석에 나타난 “間”의 용례를 살펴보면, 原始詞의 음의관계를 반영하는 예문은 [35]~[41]이며, 이 가운데 거성으로 독음(間廁之間)하며 명사 “문틈, 빈틈”(去聲)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40]번의 예문이다. 나머지 용례에서는 주로 동사 “간여하다”, “(중간에서) 번갈아가며 행동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間”의 두 종류의 滋生詞 가운데, 첫 번째 滋生詞의 음의관계를 반영하는 예문은 [42]~[49]으로 평성으로 독음(古閑反)하며 명사 “간격”, 동사 “간격이 생기다”, “간격이 있어 변화가 생기다”, “(중간에서) 시비를 가리다”라는 의미로 발전했는데, 원시사와 자생사 사이는 變調構詞의 관계가 성립한다. 특히 [49]번의 예문에서 동사로 “상대방의 결점을 살펴보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滋

生詞는 “빈틈”을 의미하는 原始詞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陸法言은 “間”의 滋生詞에 대해서 “如字”라고 注하여 평성의 독음을 “間”의 기본음으로 보았는데, 자형으로나 『說文』 段注(從門月, 會意也。門間而月入, 門有縫而月光可入, 皆其意也。)를 보더라도 거성 독음으로 “문틈, 빈틈”의 의미를 가진 “間”이 원시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자형상 “間”은 “間” 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임에 미뤄 볼 때, 이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50]번 예문은 “간격을 두다”라는 의미로 앞에서 다룬 첫 번째 滋生詞와 의미적으로 일맥상통하게 된다. [51]~[54]번 예문은 모두 형용사로 “한가하다”의 의미로 독음은 “戶閑反”이며, 두 번째 滋生詞의 “간격이 생기다”, “간격이 있어 변화가 생기다”의 의미로부터 발전하였고 음의관계상 變聲構詞의 관계이다.

다른 중고시기 운서에서도 “間”의 音變構詞에 대한 音義關係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廣韻』古閑切：“隙也。近也。又中間。通同閑，見禰韻，古莫切。” 戶閑切：無釋義。古禰切：“廁也。瘳也。代也。送也。迭也。隔也。又音平聲。” 『群經音辨·辨字同音異』：“間，中也。古閑反；間，廁也。古莫反；間，隙也。胡姦反；昌間，魯地也。音簡。『春秋傳』：‘大蒐于昌間。’又古閑反。”)

### (5) 校

原始詞는 명사 “나무로 만든 형벌기구, (죄인의 목이나 발목에 채우는) 칼”라는 의미로, 독음은 “戶教反(去聲)”이다. “校”의 滋生詞는 세 종류인데, 첫 번째 滋生詞는 “나무탁상의 다리”, “(신체부위의)정강이”의 의미이며, 독음은 “胡鮑反(上聲)”이다. 두 번째 滋生詞는 명사 “학교”라는 의미이고, 독음은 “戶教反(去聲)”이다. 세 번째 滋生詞는 동사 “복수하다, 저항하다”, “교정하다”라는 의미이며, 독음은 “古孝反(去聲)”이다.

① 匣效開二去/(匣肴開二平)/(匣巧開二上)/(見效開二去)-“나무로 만든 형벌기구, 나무로 만든 기구”

[55] 『禮記·祭統』：“君卷冕立于阼，夫人副、禕立于東房，夫人薦豆執校。

(제사에서 군주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몸에는 곤룡포를 두르고 계단 위에 선다. 부인은 머리에 장식을 하고 예복을 입고 동방 앞에 선다. 부인이 제기를 들어 진상할 때는 손으로 제기 가운데의 얇고 곧은 부분을 잡는다.) 『釋文』：“校，戶教反，又戶交反，又下卯反，下同柄也。”(205-21a-7)

[56] 『周易·噬嗑』：“初九：履校滅趾，無咎。(끝에서 두 번째 양효陽爻, 족쇄를 끌며 발꿈치를 가리니, 해를 입지 않는다.)”注：“校者，以木絞。校者也，即械也。校者，取其通名也。”『釋文』：“校，爻教反，馬音教。”(22-8b-9)

② 匣巧開二上/(端效開二去)/(溪肴開二平)－“탁상다리”, “(신체부위의) 정강이”

[57] 『儀禮·士昏禮第二』：“主人拂几，授校，拜送。(주인은 탁자의 먼지를 털고, 탁상을 건넌 때는 탁상다리를 잡으며, 손님에게 절을 하고 배웅한다.)”注：“校，几足。”『釋文』：“劉胡飽反，又丁孝反，一音苦交反。”(144-3b-11)

[58] 『儀禮·士喪禮第十二』疏：“案記云：‘綴足用燕几，校在南，御者坐持之。’鄭注云：‘校，脛也。尸南首，几脛在南，以拘足則不得辟戾矣。’”『釋文』：“校在，劉胡飽反，一音苦交反。”(157-30a-2)

③ 匣效開二去/(見效開二去)－“학교”, “관직명”

[59] 『尚書·序』：“漢室龍興，開設學校。(한 황실이 흥성하자, 학교를 개설했다.)”『釋文』：“戶教反。『詩箋』云：‘鄭國謂學爲校。’”(32-28b-11)

[60] 『詩經·子衿』序：“『子衿』刺學校廢也，亂世則學校不脩焉。(『子衿』은 학교가 폐지되고, 난세에 학교에서 인재들을 배양하지 못하게 된 것을 풍자하고 있다.)”『釋文』：“戶孝反。鄭國謂學爲校。『左傳』云：‘鄭人游於鄉校’是也。公孫弘云：‘夏曰校。’沈音教。”(65-26a-4)

[61] 『詩經·七月』注：“公堂，學校也。(‘公堂’은 ‘학교’이다.)”『釋文』：“校，戶教反。”(73-6b-6)

[62] 『周禮·地官司徒』注：“司門若今城門校尉，主王城十二門。(‘司門’은 마

치 지금의 ‘城門校尉’와 같아서, 王城의 12개의 성문을 관장한다.)”『釋文』：“校，胡孝反。”(114-13a-9)

[63] 『周禮·夏官司馬』注：“校之爲言校也，主馬者必仍校視之。校人，馬官之長。(‘校’를 ‘校’라고 말하는 것은, 말을 관리하는 자가 반드시 말을 잘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校人’이라 함은 말을 관장하는 관리들의 수장이다.)”『釋文』：“校，戶教反，字從木，若從手旁作，是比校之字耳，今人多亂之，注‘校之’、‘校人’同。”(126-1b-6)

[64] 『春秋左傳·襄公·傳三十一年』：“鄭人游于鄉校，以論執政。(정나라 사람들은 향교에서 놀면서, 정치에 대해 토론한다.)”『釋文』：“校，戶孝反，鄭國謂學爲校。”(271-21a-11)

④ 見效開二去-“복수하다, 저항하다”, “교정하다”

[65] 『禮記·中庸第三十一』注：“南方以舒緩爲強，不報無道謂犯而不校。(남방에서는 편안하고 느긋한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 무도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복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釋文』：“校，交孝反，報也。”(208-1b-7)

[66] 『春秋左傳·僖公·傳五年』：“重耳曰：‘君父之命不校。’乃徇曰：‘校者，吾讎也。’(중이는 ‘부왕의 명령은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명을 내려 ‘저항하는 자는 나의 원수이다.’라고 말했다.)”『釋文』：“校音教。”(232-23a-7)

[67] 『春秋左傳·僖公·傳二十三年』：“保君父之命而享其生祿，於是乎得人。有人而校，罪莫大焉。吾其奔也。(부왕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보살피 봉록을 누렸고, 이로부터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도 진나라 군사에 저항하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내가 이곳을 떠나겠다.)”『釋文』：“音教，報也。”(235-3b-4)

[68] 『爾雅·釋詁下』：“覆、察、副，審也。(반복해서 교정하다[覆], ‘살펴보다[察], ‘부장[副]’ 등의 어휘는 ‘심사하다審’라는 의미이다.)”注：“覆校、察視、副長皆所爲審諦。”『釋文』：“音教。”(410-7a-11)

이상의 문헌과 『經典釋文』 속에 반영된 “校”의 音義關係를 살펴보면, 하나의 原始詞에서 세 종류의 滋生詞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滋生詞는 原始詞의 “나무로 제작한 기구”라는 의미에서 인신된 “나무탁상의 다리”이다. 원시사와 이 자생사는 거성에서 상성으로 성조의 변화만으로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낸 變調構詞이다. 두 번째 滋生詞도 첫 번째 滋生詞처럼 “나무”라는 동일한 매개체에서 인신되었는데 즉, “(나무로 울타리를 만든) 학교”라는 의미이다. 원시사와 두 번째 자생사는 음의관계상 독음은 같고 의미상의 변화만 있는 詞義構詞이다. 세 번째 滋生詞는 동사 “복수하다, 저항하다”, “교정하다”라는 의미이다. 의미상 원시사의 의미로부터 “나무로 만든 도구로 저항하다 혹은 교정하다”의 의미로 인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原始詞와 세 번째 滋生詞를 음의관계에서 보면 匣母에서 見母로 성모의 변화로 의미의 변화를 나타낸 變聲構詞이다.

여타의 중고시기의 운서에서도 “校”의 음의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廣韻』胡教切：“校尉，官名。亦姓。『周禮』：‘校人之後’古孝切：“檢校，又考校。”『群經音辨·辨字同音異』：“校，木囚也，古孝切。校，疾也，古飽切。『禮』：‘設兵同疆，舉圍欲細，細則校。’鄭康成讀又喉巧切。校，几足也，苦交切。『禮』：‘拂几授校。’又戶交，胡飽二切。校，木關也，戶教切。以木爲關格曰校，故凡居處有闌衛，皆謂之校。”)

## 2) 중고음 이독자의 상고한어에서의 연원

俞敏(1999)은 선진시기에 새로운 어휘가 파생 모델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어휘가 생산됨에 따라, 종종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새 어휘와 문자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결코 평행적이지 않다. 문자는 자주 어휘보다 뒤떨어진다. 아예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는 또한 “示”자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示”자는 본래 사동사이다. 나중에 ‘視’자가 만들어지자, 이 글자도 사동사로 쓰였다. 최종적으로 역할이 정해졌는데, ‘示’자는 使動을 기록하고, ‘視’자는 能動을 기록하게 되었다.” 俞敏은 古漢語의 어휘파생형

식을 11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한 종류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온 어휘가 청음성모로 시작되고, 새로 파생된 어휘는 탁음성모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俞敏이 이 종류에 속하는 어휘 가운데는 본 논문에서 음의관계를 분석한 “期”, “閒”, “校”도 들어있다. 俞敏의 분석을 살펴보면, “期”자의 초기형은 “g-”형 동사로 보고, 파생형은 “k-”형 명사로 보았다. “閒(閑)”자의 초기형은 “k-”형의 명사로, 파생형은 “g-”형의 형용사로 파악했다. “校”자의 초기형은 “k-”형의 명사로, 파생형은 “g-”형의 명사로 분석했다. 그는 비록 原始詞와 滋生詞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형의 틀에 얽매이지 않아야함을 강조했고, 상고한어의 새로운 어휘의 파생을 음의관계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문헌에 수록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중고한어 이독자의 상고한어의 연원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상고한어의 이독자와 同源詞의 관계이다. 王力(1982b : p.3)의 정의에 따르면, 同源詞란 “字音과 字義가 모두 유사하거나, 자음은 유사하고 자의는 동일하거나, 자의는 유사하고 자음은 동일한 글자(凡音義皆近, 音近義同, 或義近音同)”를 말한다. 또한 王力은 同源詞에 대해 “이러한 글자들은 모두 동일한 연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어휘들은 동시에 생성되었는데, 그 예로는 ‘背’와 ‘負’를 들 수 있다. 어떤 어휘들은 시기적으로 차이를 두고 생성되었는데, 그 예로는 ‘鼈’와 ‘旄’를 들 수 있다. 동원사는 대개 하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字音의 미세한 차이 혹은 동일한 음으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몇 개의 개념을 나타낸다.”<sup>8)</sup>라고 설명했다. 王力(1982b)에서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監”, “觀”, “閒”, “校” 등을 동원사에 포함시키고 있다.<sup>9)</sup> 앞에서 “監”, “觀”, “閒”, “校” 등의 어휘가 중고한어에서 이독자

8) 王力(1982b : p.3) : “這些字都有同一來源。或者是同時產生的, 如‘背’和‘負’; 或者是先後產生的, 如‘鼈’和‘旄’。同源字, 常常是以某一概念為中心, 而以語音的細微差別(或同音), 表示相近或相關的幾個概念。”

9) 王力(1982b) :

-(p.341) kyang鏡 : keam鑑(鑒監)(陽談通轉)

『說文』: “鑑, 大盆也, 一曰鑑諸, 可以取明水於月。” 徐灝: “鑑, 古祇作監, 從皿以盛水也。其後範銅爲之, 而用以照形者, 亦謂之鑑, 聲轉爲鏡。”

-(p.550) kuan觀 : khan看(見溪滂紐, 疊韻)

『說文』: “觀, 諦視也。” 『說文』: “觀, 諦視也。” 『廣雅·釋詁一』: “觀, 視也。”

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漢代 經師들의 注音과 注釋을 통해서 적어도 상고 후기 부터 이 어휘들의 原始詞와 滋生詞가 이미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 어휘들과 그들의 同源詞들은 이 어휘들이 原始詞에서 滋生詞를 생성해 나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다만 音變構詞 가운데 특히 變調構詞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孫玉文(2007)의 견해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孫玉文(2007 : 426-429)은 變調構詞와 同源詞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상고한어의 동원사를 통해서 상고시기에 變調構詞들이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고시기에 아래의 두 가지 특징의 동원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상고한어에 변조구사가 존재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단의 동원사가 상고한어시기 글자의 의미가 서로 유사하거나 상관관계가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일단의 동원사가 상고한어에서 성모와 운모가 같고 오직 성조만 일치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동원사로부터 상고한어에 변조구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원시사와 자생사는 모두 동원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변조구사의 어휘쌍은 반드시 위의 두 조건에 부합한다. 다만 원시사와 자생사의 사이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어휘쌍 가운데 하나는 원시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생사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10)</sup> 이 주장의 핵심은 상고한어의 音變構詞의 관계를 가진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同源詞라고 볼 수 있지만 동원사가 곧 音變構詞인 것은 아니며, 同源關係를 가진 音變構詞가 성립하려면 원시사와 자생사의 관계가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p.279) khyak(隙(郤)) : kean(間(間))(溪見旁紐, 鐸元通轉)

『國語·周語上』：“蒐於農隙。”注：“隙，間也。”『漢書·高帝紀上』：“今將軍與臣有隙。”

-(p.300) keô(𪛗) : heô(倣(攸)校)(見匣旁紐, 宵部疊韻)

『孟子·滕文公上』：“設爲庠序學校以教之。庠者，養也；校者，教也；序者，射也。”

10) 孫玉文(2007 : 426-429) : “承認上古有這樣特點的同源詞，就能得出上古漢語有變調構詞的結論：一、一組同源詞在上古意義只是相近或相關，且不能同；二、一組同源詞在上古聲韻全同，唯有聲調不同。能同時符合這兩個條件的同源詞就能推定上古有變調構詞……因爲原始詞和滋生詞也屬於同源詞，凡屬變調構詞的配對詞，一定符合上面的兩個條件；只是它們多了一個條件，即我們能確定其中一個是原始詞，另一個是滋生詞。”

###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고음 시기의 이의이독자인 “監”, “觀”, “期”, “間”, “校” 등의 다섯 개의 한자를 實例로 『經典釋文』, 『玉篇』, 『廣韻』, 『集韻』, 『群經音辨』 등 음의서와 운서 등을 참고하여 해당 한자들이 적어도 상고음 후기 이후로 어떤 音義關係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았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監”의 原始詞와 滋生詞의 音義關係

原始詞	滋生詞	構詞法
감시하다, 감독하다, 감시자, 감독관/古銜切(平聲)	(물이나 거울에) 비취보다, (사람이나 사물에) 비취 생각하다, 미뤄 유추하다/古儼切(去聲)	變調構詞/使 動構詞

“觀”의 原始詞와 滋生詞의 音義關係

原始詞	滋生詞	構詞法
보다, 관찰하다/古丸切(平 聲)	(다른 사람에게) 보이다, (아랫사람에게) 보이다/古玩切(去聲)	變調構詞

“期”의 原始詞와 滋生詞의 音義關係

原始詞	滋生詞	構詞法
기약하다, 일정한 기간/渠之切(平聲)	1. 주기, 기일/居之切(去聲)	變聲構詞
	2. 매년 주기적 복상을 치르다/居宜切(平聲)	變韻構詞/ 特指構詞

“間”의 原始詞와 滋生詞의 音義關係

原始詞	滋生詞	構詞法
문틈, 빈틈/間 廁之間(去聲)	1. 간여하다/(중간에서) 번갈아가며 하다/古閑反(平聲)	變調構詞
	2. 간격, 간격이 생기다, (간격이 있어) 변화가 생기다, (중간에서) 시비를 가리다/古閑反(平聲)	變調構詞
	2-2. 한가하다/戶閑反(平聲)	變聲構詞

## \*校\*의 原始詞와 滋生詞의 音義關係

原始詞	滋生詞	構詞法
목재 형별도구, 목재 기구/戶教反(去聲)	1. 나무탁상의 다리, (신체부위의) 정강이/胡鮑反(上聲)	變調構詞
	2. 학교/戶教反(去聲)	詞義構詞
	3. 복수하다, 저항하다, 교정하다/古孝反(去聲)	變韻構詞

위의 분석 결과를 음의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다섯 개의 용례 모두 變聲構詞, 變韻構詞, 變調構詞, 詞義構詞, 使動構詞, 特指構詞 등에서 두 개 이상의 構詞法를 사용해서 原始詞에서부터 다양한 滋生詞를 생성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 속의 注音와 注釋을 통해서 중고시기 異讀字에 대해 공시적인 분석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층차와 연원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독자들 간의 음의관계에 따라 다양한 構詞法가 활용됐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孫玉文 선생의 논증에 따라 이러한 構詞法가 발생했던 시기를 적어도 상고한어후기까지 끌어 올릴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의 정리와 분석을 통해 상고한어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陳寅恪, 「從史實論切韻」, 『陳寅恪史學論文選集』, 1949.
- 陳忠敏, 「方言間的層次對應——以吳語虞韻讀音爲例」, 『閩語研究及其周邊方言的關係』, 中文大學出版社, 2002.
- 陳忠敏, 『漢語方言音史研究與歷史層次分析法』, 北京, 中華書局, 2013.
- 丁邦新, 『魏晉音韻研究』, 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六十五, 1975.
- 丁邦新, 「重建漢語中古音系的一些想法」, 『中國語文』第6期, 1995.
- 丁邦新, 「漢語方言層次的特點」, 『永遠的POLA: 王士元先生七秩壽慶論文集』, 中研院語言研究所, 2005.
- 丁鋒, 『博雅音』音系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5.
- G. B. Downer, 「DERIVATION BY TONE-CHANGE IN CLASSICAL CHINESE」

-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No.22, 1959.
- 何大安, 『南北朝韻部演變研究』, 臺灣大學博士論文, 1981.
- 何大安, 『濁上變去』與現代漢語, 『聲韻論叢』第2輯, 1988.
- 何大安, 『規律與方向: 變遷中的音韻結構』,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九十, 1988.
- 何久盈, 『切韻』音系的性質及其他——與王顯、邵榮芬同志商榷, 『中國語文』第9期, 1961.
- 黃淬伯, 『慧琳一切經音義反切考』, 史語所專刊之六, 1931.
- 黃淬伯, 『唐代關中方言音系』, 江蘇古籍出版社, 1998.
- 黃笑山, 『切韻和中唐五代音位系統』, 文津出版社, 1995.
- 李榮, 『隋韻譜』, 『音韻存稿』, 北京商務印書館, 1982.
- 劉廣和, 『唐代八世紀長安音的韻系和聲調』, 『河北大學學報』第3期, 1991.
- 劉綸鑫, 『濁上變去見於南宋考』, 『中國語文』第1期, 1997.
- 龍宇純, 『唐寫全本王仁昫刊謬補缺切韻校箋』, 香港中文大學, 1968.
- 羅常培, 『唐五代西北方音』,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單刊甲種之十二』, 1931.
- 邵榮芬, 『經典釋文』音系, 臺灣學海出版社, 1995.
- 孫玉文, 『漢語變調構詞研究』(增訂本), 商務印書館, 2007.
- 唐作藩, 『破讀音的處理問題』, 『辭書研究』第2期, 1972.
- 王福堂, 『漢語方言的層次』, 『語言學論叢』第27輯, 2003.
- 王力, 『玄應一切經音義反切考』, 『王力文集』第18卷, 1982a.
- 王力,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1982b.
- 王力, 『經典釋文反切考』, 『音韻學研究』第1輯, 中國音韻學研究會, 1984.
- 王士元(石鋒譯), 『語言的探索——王士元語言學論文選譯』,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0.
- 徐通鏞, 『歷史語言學』, 北京商務印書館, 1991.
- 楊秀芳, 『閩南語文白異讀系統的研究』, 臺灣大學中文研究所博士論文, 1982.
- 楊秀芳, 『論文白異讀』, 『王叔岷先生八十壽慶論文集』, 大安出版社, 1993.
- 俞敏, 『古漢語派生新詞的模式』, 『俞敏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1999.
- 張冰, 『經典釋文』博雅音系研究及與『切韻』的比較, 北京大學博士論文, 2010.
- 周法高, 『玄應反切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20輯, 1948.
- 周法高, 『中國古代語法·構詞編』,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專刊之三十九, 1962.
- 周法高, 『玄應反切再論』, 『大陸雜誌』第5期, 1984.
- 周玟慧, 『從中古方言層重探『切韻』性質——『切韻』、『玄應音義』、『慧琳音義』的比較研究』, 臺灣大學博士論文, 2003.
- 周祖謨, 『四聲別義釋例』, 『問學集』, 1949.

周祖謨,『校讀玄應一切經音義後記』,『問學集』,1966.

周祖謨,『唐五代的北方語音』,『語言學論叢』第15輯,1988.

- 古籍 -

『玉篇』,〔梁〕顧野王著,中華書局,1985/2004.

『大廣益會玉篇』,〔梁〕顧野王著,〔宋〕陳彭年等重修,中華書局,1987/2004.

『經典釋文』,〔隋〕陸德明著,黃坤堯,鄧仕樑校訂索引,學海出版社,1988.

『博雅音』,〔隋〕曹憲著,〔清〕王念孫著『廣雅疏證』收錄,中華書局,1983/2004.

『唐五代韻書集存』,周祖謨編,中華書局,1983/2005.

『廣韻』,〔宋〕陳彭年,丘雍等重修,中華書局,1960.

『群經音辨』,〔宋〕賈昌朝著,商務印書館,1934.

〈中文提要〉

本論文參考『經典釋文』,『玉篇』,『廣韻』,『集韻』,『群經音辨』音義書和韻書,分析中古音時期的五個異讀字“監”,“觀”,“期”,“閑”,“校”在上古後期以來的音義關係和構詞類型。從音義關係的觀點來看,以上的五個異讀字都使用“變聲構詞”,“變韻構詞”,“變調構詞”,“詞義構詞”,“使動構詞”,“特指構詞”當中兩個以上的構詞法,從原始詞滋生出新的滋生詞。

通過本論文的整理和分析結果,我們不但可以了解到中古時期共時層面上看不出來的異讀字在上古後期以來的層次和演變,也可以了解到這些異讀字按照它們自己的音義關係發展出各式各樣的構詞方式。

關鍵詞：異讀字,音義關係,原始詞,滋生詞,構詞法

이 논문은 2015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